사회 다윈주의의 이데올로기적 성격

김 호 연
강원대학교 사학과 강사

목 차

1. 서론
2. 자유방임주의
3. 우생학
4. 인종주의와 제국주의
5. 결론

1. 서론

대부분의 이론들이 그러하듯이 과학이론들 역시 진공 속에서 탄생하는 것이 아니다. 과학이론들은 한 시대의 사회 문화적 담론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특히 그 이론들의 창시자들은 의도하던 의도하지 않던 간에 한 시대의 사회 문화적 함의와 교감을 나누며 생활한다. 물론 모든 과학이론의 내용들이 사회적으로 구성된다는 말은 아니다. 하지만 인간 혹은 사회를 주된 탐구의 대상으로 삼는 분야일 경우는 한 시대의 사회 문화적 함의들과의 연관성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인간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생물학과 같은 분야의 경우에서 이러한 사정을 좀 더 쉽게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그 생물학 이론이 보편적 가치를 갖게 될 경우는 더더욱 그러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새롭게 생성된 과학이론들이 이데올로기와 결합될 경우 과학이론 고유의 본질적 내용이나 창시자의 의도를 왜곡시킬 수 있다는 데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다윈의 진화론을 이데올로기로 교묘히 윤색한 사회다윈주의라는 망령에서 이 같은 과학이론의 왜곡 현상을 잘 살펴볼 수 있다. 물론 다윈이 사회다윈주의라는 이데올로기를 창시한 것은 아니다. 그것은 19세기말 당시 위기에 봉착했던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이 자신들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기 위한 필요에서 탄생한 것이었다.

19세기 후반 역사의 무대에 등장한 사회다윈주의는 다윈의 진화론과 그것의 주요 개념들을 인간과 사회라는 과학외적인 현상에 적용한 일종의 정치 이데올로기였다. 그린(John C. Green)은 사회다윈주의를 " 개인 · 부족 · 민족 및 인종간의 생존경쟁을 사회 진보의 주요한 추동력이라고 보는 신념"[1]으로 정의한 바 있다. 이러한 정의에 의한다면 사회다윈주의는 생물학적 진화와 인간 사회의 진보를 동일한 메커니즘으로 바라보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사회다윈주의는 대략 19세기 후반 유럽대륙에서 그 용어가 처음 사용된 이래 점점 대중적으로 전파되어 보통 20세기 초엽까지 서구 유럽사회의 정치 · 경제 · 사회현상 등을 설명하는 하나의 이데올로기 내지 현실정책으로 기능하였다. 그리고 대략 제1차 세계대전을 기점으로 쇠퇴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단순한 생물학 이론에 불과했던 다윈의 진화론과 그 주요개념들을 인간과 사회에 적용함으로써 탄생한 사회다윈주의는 종종 자유방임을 주장하며, 자본주의적 질서를 옹호하는 知的 도구로, 혹은 우생학(Eugenics), 인종주의(Racism), 제국주의(Imperialism) 등을 옹호하는 이데올로기로도 사용되었다.[2]

---

[1] John C. Green, Science, Ideology, and World View : Essays in the History of Evolutionary Ideas (Los Angeles : Calif. U.P., 1981), p. 95.

[2] Richard Hofstadter, *Social Darwinism in American Thought* (New York : George Braziller, 1959) ; Jacques Barzun, *Darwin, Marx, Wagner : Critique of a Heritage* (Garden City : Double Day, 1958) ; Carlton J. H. Hayes, *A Generation of Materialism, 1871-1900* (New York : Harper Brothers, 1941) ; Franklin L. Baumer, *Modern European Thought : Continuity and Change in Ideas, 1600-1950* (N.Y. : Holmes & Meier, 1977) ; H. Stuart Hughes, *Consciousness and Society : The Reorientation of European Social Thought, 1890-1930* (N.Y. : Vintage Books, 1977) ; Daniel Gasman, *The Scientific Origins of*

여기서는 사회다윈주의를 자유방임주의, 우생학, 인종주의 및 제국주의 등과 연관하여, 그것이 현상유지를 옹호하는 보수적 이데올로기이자 인종적 차별과 사회적 계층화를 정당화했던 비인도적이고 엘리트적인 이데올로기였다는 점을 밝혀보기로 한다. 이를 통해 과학이론이 이데올로기와 결합될 경우 매우 심각한 역사적 폐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보고자 한다.

2. 자유방임주의

다윈이 자신의 이론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스펜서의 적자생존이란 문구를 활용하면서 야기된 특징적인 현상은 스펜서의 사회 진보에 대한 신념과 다윈의 생물학적 진화 개념이 하나로 통일되어 있는 것으로 대중들에게 인식되었다는 점이다.

‘ 진화’ 와 ‘ 진보’ 를 동일시하는 당시의 시대적 분위기는 자연과 사회라는 물리적 공간에 적용되는 보편적인 과학의 법칙이 존재한다고 믿게 하였는데, 그것은 자연과학주의로 대별되는 과학만능의 시대적 분위기의 반영과도 연관된 것이었다. 19세기 중엽 다윈이 자신의 자연도태론을 적자생존이라는 스펜서의 문구를 차용해 설명한 것은 대중들에게 다윈의 생물학적 진화와 스펜서의 사회 진보의 관념을 동등한 수준의 것으로 인식시켰으며, 심지어 대중들은 진화와 진보를 숭배하는 것처럼까지 보였다.[3] 이제 다윈의 진화론은 단순한 자연과학의 이론을 뛰어넘어 사회를 이해하는 하나의 유추로 작용되었다.

이러한 진화와 진보의 동일화 경향은 다윈이 맬서스의 생존경쟁이라는 관념을 차용함으로써 생긴 자연스런 결론이라고 볼 수 있다. 다윈은 맬서스로부터 생존경쟁 관념을 인식하고, 그것을 토대로 자연도태론을 확립하였다. 또한 다윈이 맬서스의 생존경쟁이라는 관념을 차용한 것은 자연스럽게 스펜서의 적자생존을 수용하도록 만들었다. 왜냐하면, 생존경쟁은 필연적으로 선택되는 자와 도태되는 자를 결과하기 때문이다.

적자생존이라는 문구에서 適者는 최상(best)을 함축하는 것으로 판단될 소지가 크다. 생존경쟁을 통해서 선택되어진 존재, 즉 適者는 이제 자연의 섭리에서 사회의 보편적 진리로 대중들에게 인식되어지게 된 것이다. 바로 이러한 혼합이 보수주의자들로 하여금 생존경쟁을 사회 진보의 추동력으로 인식시켰던 것이다.[4] 요컨대 다윈이론에서 스펜서의 문구는 사회다윈주의자들이 생존경쟁을 생물학적 용어로서보다는 오히려 사회에서의 생존경쟁으로 생각하는 경향을 심화시켰던 것이다.

이를 토대로 사회다윈주의자들은 생존경쟁 논리와 현상유지의 정당화를 위한 이론적 무기를 필요로 하게 되었고, 바로 이러한 필요가 스펜서의 사상을

National Socialism : Social Darwinism in Ernst Haeckel and the Monist League (N.Y. : American Elsevier, 1971) 참조.

[3] Donald K. Pickens, *Eugenics and the Progressives* (Nashville, Tenn. : Vanderbilt U.P., 1968), p. 10.

[4] James Allen Rogers, “ Darwinism and Social Darwinism,” in *Journal of the History of Ideas*, vol. 36, no. 2, 1975, p. 267.

사회다윈주의를 위한 이론으로 기능하도록 만든 이유이다. 실제로 사회다윈주의자들은 다윈이 사용한 생존경쟁과 적자생존이라는 두 테제를 중심으로 스펜서의 진보 이론을 인간사회에 적용하여 자유방임주의 및 사회적 계층화 등을 정당화하였다. 따라서 여기서는 사회다윈주의자들에게 심대한 영향을 끼친 스펜서의 자유방임적 사회 진보 사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스펜서는 빅토리아 시대 영국 사상계를 지배한 사회진화론자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상가로 그의 사상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관심대상이 되고 있다. 당시 스펜서가 끼친 영향은 러시아에서 미국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하였다. 이러한 당시의 영국사회를 풍미하던 스펜서의 사상은 동시대의 다윈과 연결되어 빅토리아 시대의 하나의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냈다.[5)]

한편 스펜서와 다윈이 활약하던 19세기 중반 이후는 다양한 사상들이 자유시장에서 타당성 확보 경쟁을 벌이던 시대로 평가되기도 한다. 자유주의의 위기라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다양한 이론들과 새롭게 자리잡은 사상들은 당시 풍미하던 다윈의 진화론과 스펜서의 사상에서 영향을 받으며 성장하였다.[6)]

또한 스펜서가 왕성한 활동을 벌이던 시기는 서구사회에서 생존경쟁적 시대분위기가 대체로 심화되고 있던 19세기 후반이다. 이 시기는 국내적으로는 산업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라 냉혹한 자유경쟁이 가속화된 시기였으며, 국제적으로는 국가간 전쟁이 빈발하던 시기로, 서구인들에게 생존경쟁이란 관념은 사실상 생활의 일부로까지 받아들여지게 된 시기였다.

바로 이러한 생존경쟁적 사회분위기의 심화가 다윈의 생존경쟁에 의한 자연도태라는 관념과 스펜서의 사회진보 논리를 보다 견고하게 결합시켜, 사회다윈주의자들이 진화와 진보를 동일시하고, 자신들의 논리적 정당화를 위해 다윈과 스펜서를 혼합했던 시대적 요인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다윈과 스펜서의 결합을 가능케 해 준 知的 요인들은 스펜서의 저작들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이 저작들에서 살펴볼 수 있는 스펜서 사상의 핵심적인 테마는 사회는 끊임없이 진보한다는 이른바 ‘ 발전가설(the development hypothesis)’과 사회 · 정치적 문제에 있어서의 자유방임주의 및 국가간섭 배제라는 사상이었다.[7)]

먼저 스펜서의 진화적 태도에 대해서 살펴보자. 스펜서는 1850년대 들어서면서 진화사상을 체계화시켜 나갔는데, 『발전가설』(*The Development Hypothesis*, 1852)이 스펜서를 진화철학자로 불리게 한 최초의 저술이다. 여기서 스펜서는 어떤 현존하는 種들이 이전의 환경과 다른 조건 하에 놓일 때 즉시 새로운 조건에 그것을 적합하게 하는 어떤 변화를 겪기 시작한다고 하면서

---

5) J. W. Burrow, Evolution and Society : A Study in Victorian Social Theory (London : Cambridge U.P., 1966), 참조.

6) 愼連緈, 『스펜서(Herbert Spencer)의 사회진화론과 자유주의』, 『國際政治論叢』, 제 34 집 제 1 호, 韓國國際政治學會, 1995, p. 201.

7) 스펜서 저작들의 간략한 요점은 Robert Carneiro (ed.), *The Evolution of Society : Selection from Herbert Spencer's Principles of Sociology* (Chicago : Univ. of Chicago Press, 1974) ; J. D. Y. Peel (ed.), *Herbert Spencer on Social Evolution* (Chicago : Univ. of Chicago Press, 1972) 참조.

적응개념을 처음으로 개진하였다.[8] 스펜서는 적응개념으로 진화를 설명하고, 이러한 적응은 생존경쟁과 不適者의 제거를 통해 달성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스펜서는 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악은 환경조건에 대한 제도들의 비적응의 결과라고 인식하였다.

한편, 스펜서가 적자생존이라는 문구를 처음으로 사용한 저술은 『동물의 다산성에 관한 일반법칙으로부터 추론된 인구론』(*A Theory of Population, Deduced from the General Law of Animal Fertility*, 1852)으로, 이 저술은 진화론적인 관점을 인구이론에 적용시킨 것으로 다윈과 월리스(A. R. Wallece)의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9] 그러나 이 저술에서 자연도태의 원리와 비슷한 관념이 나타나긴 하지만 그것을 인간 사회로까지 확대해서 적용하지는 않았다.

이후 스펜서는 『사회학 연구』(*The Study of Sociology*, 1873)를 통해 자신의 진화적 태도를 인간 사회로까지 확장시켰다. 그는 초식동물들과 육식동물의 다양한 생존경쟁, 즉 환경에 대한 생존경쟁, 초식동물과 육식동물간의 생존경쟁, 각 동물 내부에서의 생존경쟁을 탐구하였다. 스펜서는 다양한 생존경쟁이 존재한다는 것을 설파하면서도, 그 중에서 種의 진화를 가져오는 직접적인 요인은 그 種 내부의 개체들 간의 생존경쟁이라고 확신하였다. 이러한 결론으로부터, 그는 인류도 다른 동물들과 똑같은 정도로 생존경쟁에 예속되어 있으며, 동물들 사이에서처럼 인간들 사이에서의 싸움도 인류의 진보를 가져온다고 주장하였다.[10]

이러한 결론으로부터 스펜서는 진화를 상대적으로 불확정적이고 응집성이 결여된 동질성(homogeneity)의 상태로부터 상대적으로 확정적이며 응집적인 이질성(heterogeneity)의 상태로의 변동으로 파악하고, 이것은 자연과 인간, 양자에 적용되는 보편적인 과정이라고 인식하였다.

나아가, 스펜서는 ‘ 군사사회(militant society)’와 ‘ 산업사회(industry society)’의 비교를 통해, 前者는 사회의 능률을 위해 무력전쟁을 일삼는 사회로, 아직 개선되지 않은 사회이다. 이후, 전쟁을 통한 정복이 일단락되면, 前者는 後者, 즉 산업사회로 이동해간다. 이 사회는 무력전쟁이 아니라 산업적 경쟁이 중심이 되는 사회이며, 고등한 사회상태를 이루는 사회이다. 바로 이러한 군사사회에서 산업사회로의 전화는 진화의 과정과 일맥상통하며, 그러기에 생존경쟁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였다.[11] 결국, 스펜서는 사회도 자연에서와 같이 생존경쟁을 통해 진보해나간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제 스펜서에게 진화는 모든 변화를 포괄하는 것임은 물론 점진적 개선과 고도의 형태를 지향하는 변화로 인식되었으며, 그것은 저급단계에서 고급단계로, 열등상태에서 우월상태로의 직선적 진보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요컨대 스펜서에게

---

8) 朴 檀, 『Herbert Spencer 의 社會思想硏究 : 社會的 進化論과 土地財産權과의 關係를 中心으로』, 西江大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86, p. 21.

9) Herbert Spencer, “ A Theory of Population, Deduced from the General Law of Animal Fertility,” in *Westminster Review*, i (1852), pp. 389-390, quoted in Robert M. Young, “ Malthus and The Evolutionists : The Common Context of Biological and Social Theory,” in *past and present*, no. 43, 1965, p. 135.

10) 서정훈, 『19 세기말 영국의 사회진화론자들』, 『학술연구논문집』, 양영회, 1996, pp. 341-343.

11) 서정훈, 앞의 논문, pp. 343-349.

진화는 완전사회로의 목적을 담고 있는 것이었다.

한편, 스펜서도 다윈과 마찬가지로 맬서스의 『인구론』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지만, 스펜서에게 중요한 문제는 맬서스의 비관론적인 인구압력이 아니라 진보 그 자체였기 때문에 인구과잉은 생존경쟁을 야기하며, 생존경쟁에서의 적자생존은 장기적으로 ‘ 사회도태(social selection)’를 초래한다고 파악하였다. 이러한 결론은 스펜서에게 不適者의 제거와 不適者의 재생산 능력 감소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스펜서가 자유방임적 사고에 입각한 사회의 진보를 염두해 두었기 때문인 것으로 그의 인구과잉에 대한 낙관론적 견해를 엿볼 수 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살펴본 스펜서의 진화적 태도가 바로 다윈의 생물학적 진화를 사회적 차원으로 이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다. 결국, 다윈의 진화론과 스펜서의 진화적 태도가 결합되어짐으로써 생물학적 진화와 사회적 진보가 점점 하나의 사실로 인식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사회다윈주의자들에게 다윈의 진화론에서 개진된 생물학적 논의를 사회적 차원으로 이전시켜 그들의 입장을 옹호하는 데 더 없이 좋은 환경을 제공해주었다.

이러한 생물학적 진화와 사회진보 논리의 결합과 함께 사회다윈주의자들에게 영향을 주었던 사상은 스펜서의 개인주의적 논리에 입각한 자유방임적 사회질서의 옹호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스펜서는 진화를 직선적 진보로 간주하고, 그것을 완전사회로의 목적을 담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러한 진보에 대한 개념설정은 그의 자유방임주의 사상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

스펜서의 자유방임에 대한 주장은 여러 저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스펜서는 『사회정학』(*Social Statics,* 1851)에서 사회정학을 모든 개인이 자신의 고유한 능력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는 ‘ 완전사회로의 평형상태(equilibration of perfect society)’로 규정하고, 자유방임주의야말로 이러한 평형상태에 이르는 길이라고 주장하였다.[12] 즉, 인간이 완전한 행복을 획득하기 위해서 순응해야만 하는 법칙이 바로 자유방임주의라는 것이다. 이는 스펜서가 완전사회로의 목적을 담고 있다고 상정한 진화에 대한 관념과 자유방임주의가 통일적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시사해주는 것이다.

또한 스펜서는 완전한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자유방임적 사회에서는 사회의 각 성원은 자유롭게 경쟁하도록 내맡겨져야 하며, 이 사회에서는 살아 남을 만한 능력을 가진 자만이 살아남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로부터 그에게 인간은 자신의 의지대로 모든 것을 행동할 권리가 있으며, 또 다른 사람의 평등한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되는 존재로 파악되었다.[13]

이 같은 스펜서의 자유방임주의에 대한 주장은 그를 국가불간섭주의자로

---

12) Herbert Spencer, Social Statics : Or, the Conditions Essential to Human Happiness Specified, and the First of Them Developed (New York : Augustus M. Kelley, 1969[1851]) 참조.

13) Herbert Spencer, Social Statics : Or, the Conditions Essential to Human Happiness Specified, and the First of Them Developed (New York : Augustus M. Kelley, 1969[1851]) 참조.

향하게 하였다. 사회에서 개인의 경쟁을 주장한 스펜서에게 국가는 개인들에게 자유롭게 경쟁할 기회를 부여하는 역할 이외에 그 어떠한 역할을 해서도 안되며,[14] 국가는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와 외부의 침입을 방어해야 할 의무만을 가질 뿐이었다. 따라서 국가의 역할은 최소한의 기능에만 머물러야 하며 사회의 조화와 진보를 위해서 국가는 개인들의 생존경쟁을 가능하게 하는 여건을 제공하는 심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15]

스펜서의 이와 같은 국가관념으로 본다면 사회에서 생존경쟁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책임성은 개인적 차원으로 이전된다. 결국, 사회에서 성공한 개인은 適者이며 실패한 개인은 不適者로 규정되어, 성공은 정의로부터의 보상이자 미덕으로 간주되지만, 심판으로서의 역할을 초월하여 개인에 대해 간섭을 행하는 국가는 위법적 존재로 파악된다.

이러한 스펜서의 국가불간섭주의는 그가 『사회학의 원리』 (*Principles of Sociology*, 1876)에서 언급한 군사사회와 산업사회의 비교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스펜서는 ‘ 군사사회’ 를 ‘ 강제적 협동(compulsory cooperation)’ 과 생존의 추구를 핵심적 역할로 삼는 사회로 규정하였다. 또한 이 사회는 전제적 중앙집권의 사회이며, 개인적 행동의 무제한적 조절로 특징화되는 사회이다.[16] 따라서 군사사회에서는 병사의 의지가 철저하게 유보당하고, 병사의 의지는 장교의 의지의 대리자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군사사회에서는 모든 사적 · 공적 거래에 있어서 시민의 의지도 정부의 의지에 의하여 지배된다는 것이다.[17] 이러한 스펜서의 논의에 의한다면 군사사회에서의 개인은 무의지적 존재로 전락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국가는 개인들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사회통제적 존재로 파악된다.

한편, 스펜서는 군사사회가 생존경쟁을 통한 정복이 반복되어 사회 단위가 커지면 커질수록 내부적 평화와 산업적 분위기는 점점 ‘ 평형과정(equilibration)’ 을 통해 산업사회로 진화해 간다고 파악하였다. 스펜서는 ‘ 산업사회’ 를 ‘ 자발적 협동(voluntary cooperation)’ 과 개인적 자유를 기반으로 신분과 계서제 보다는 계약과 능력에 기초한 사회로 규정하였다. 또한 산업사회는 군사사회의 전제적 정치형태로부터 중앙집권화되지 않은 사회로 이동한 사회이며, 개인적 행동을 억압하는 정치권력을 제한하는 사회로 규정하였다.[18] 산업사회에서 자연도태는 이제 완전히 다른 개인적 특질들을 산출하여 개인들의 자유와 재산을 위한 사회적 안정성을 요구하는 기제가 되는 것이었다. 요컨대 스펜서가 완전한 이상사회로 상정한 이 산업사회는 자유방임주의사회임과 동시에 산업자본주의적인 부르주아 사회였던 것이다.

스펜서가 이러한 사상을 개진한 이유는 그가 사회적 질서를 일종의 자연적 과정으로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스펜서는 정부와 다른 제도들의 규제가 적자생존 원리의 사회적 작용을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파악했던 것이다.

요컨대 스펜서의 이러한 사상은 자연의 진화와 사회의 진보를 조응시키는 결론으로서, 생존경쟁이 적자생존을, 적자생존이 인간 사회의 진보를 초래한다는

---

14) *Ibid.*, p. 297.
15) 朴 檀, 앞의 논문, pp. 7-8.
16) Robert L. Carneiro (ed.), *op. cit.*, p. 216.
17) *Ibid.*, pp. 58-59.
18) *Ibid.*, p. 216.

그의 사상의 기본적인 전제에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될 수 있다.

이러한 스펜서의 관념은 곧바로 사회다윈주의자들의 심상에 각인되었다. 그들에게 스펜서의 개인주의적 자유방임주의정책은 자신들의 산업적 생존경쟁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또한 스펜서가 적자생존에 의한 사회적 질서를 자연적 과정으로 인식한 것은 그들이 사회적 계층화를 정당화하는 데 더없이 좋은 도구로 작용하였다. 바로 이러한 점이 스펜서의 사회다윈주의자에 대한 기여이고, 나아가 사회다윈주의자들의 생존경쟁적 사회윤리의 정당화와 그를 통한 자유방임적 자본주의 질서의 옹호라는 사실을 입증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분명히 사회다윈주의는 진보라는 이름아래 전개된 보수적 이데올로기라고 볼 수 있다.

3. 우생학

사회다윈주의자들에 의해 변용된 생존경쟁과 적자생존이란 문구가 가져온 심각한 사회적 영향 중의 하나는 다윈의 진화론을 근거로 생존경쟁과 적자생존을 통해 위계적 질서에 입각한 인간의 차별성을 강조했다는 사실이다.

사회다윈주의자들은 사회 속에는 자연적으로 우월한 자가 존재한다고 가정함으로써, 사회를 자연스레 상층사회와 하층사회로 구분하는 것을 정당화하였다. 이러한 사회다윈주의자들의 사고는 상이한 인종들 간에도 적용되어 인종의 서열화 경향을 증폭시켰으며, 나아가 열등한 인종들은 제거되어야 할 대상으로 전락시키기까지 하였다.[19]

이러한 사회다윈주의의 왜곡된 관념은 생존경쟁에 의한 자연도태가 인위적 형태의 도태로 대치되는 것을 허용하였는데, 그것은 국가가 不適者의 다산을 제거하기 위해서 인류의 양육을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 우생학(Eugenics)으로 발전하였다.

우생학의 발전은 사회다윈주의가 자유방임을 주장하며 현상유지를 옹호하던 차원에서 정부와 사회의 간섭을 허용하는 국면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이전에 강조되던 개인적 이해들보다는 사회적 이익에 주안점을 두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19세기말 많은 사회다윈주의자들에게 생물학은 일종의 운명과도 같은 것이었다. 이들은 생물학을 근거로 사회적으로 제거되어야 할 운명에 있는 다양한 不適者들의 운명은 유전에 의한 결과라고 확신하였다.[20] 그들은 이러한 논리를 토대로 適者의 출산은 장려하고 不適者의 출산은 제한해야 한다고 하는 우생학적 주장을 개진하였다.

이러한 이들의 주장은 문명화에 방해가 되는 사회의 생물학적 불평등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었다. 나아가 이들은 우생학을 객관적 과학, 즉 자연의 법칙에 기반한 것으로 인식하고, 인간의 본능을 과학적 조작과 사회적 조치를 통해

---

19) Peter J. Bowler, *Evolution : The History of an Idea* (Berkely : California U. P., 1989), p. 285.

20) Daniel Kelves, In the Name of Eugenics : Genetics and the Uses of Human Heredity (Mass. : Harvard U.P., 1995), pp. 20-21.

사회를 좀 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조절해야 한다고까지 생각하였다.

이러한 신념을 바탕에 두고 19세기말에서 20세기초 사이에 대중적으로 흥기하기 시작했던 우생학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요소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첫째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로 볼 수 있는 데, 19세기말의 사회개혁 프로그램에 따라 수용시설에 격리된 정신이상자들과 저능아들이 갖는 특이성은 유전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는 대중적 인식이 자리잡게 되었다. 우생학자들과 중산계급들은 정신적으로 저능한 개인들의 수가 대량적으로 증가되는 것을 저지하려고 하였고, 그들은 자신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사회적 지위는 천부적으로 유전된 능력에 기인한 것이며, 이는 자손들에게도 유전된다고 확신하였다. 그들은 나약한 이들을 위한 사회적 부담을 함께 짊어지려 하지도 않았으며, 나아가 유익한 유전적 요소들은 남기고 해로운 유전적 요소들은 제거하기 위한 환경의 조절을 위해 강자 혹은 最適者가 사회와 정부를 통제하여야만 한다고 결론지었다.[21)]

이러한 관념은 19세기말 영국의 중산계급들이 전반적으로 공유하고 있었던 사회관으로 볼 수 있다. 도시화와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서 이들의 사회적 지위와 독립성도 높아졌다. 이에 따라 이들은 전문적 지식과 실력에 기반한 사회를 理想으로 삼았고, 자본이나 노동이 아니라 훈련되고 자격을 갖춘 전문지식이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고 정당화하는 요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22)]

요컨대 퇴화의 방지를 위해 不適者를 제거해야 한다거나 국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능력있는 개체의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는 우생학적 주장은 당시의 전문직 중산계급의 이해를 대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는 과학적 차원의 문제로 1900년 이후 급속한 발전을 이룬 멘델주의 유전학의 영향을 언급할 수 있다. 우생학자들을 비롯한 사회다윈주의자들의 사회적 위치와 인종에 관한 유전적 관점은 당시 바이스만(August Weismann)의 유전연구에 힘입은 멘델주의 유전학의 발달로 인하여 그 과학성을 주장할 수 있었다. 바이스만은 생식질 연속설(germ plasm)을 제창하여, 세포는 체세포와 생식세포로 분화되어 있으며, 유전을 담당하는 것은 생식세포이고 환경의 영향을 받는 체세포는 다음 세대와는 연관이 없다고 주장하였다.[23)] 이제 라마르크의 획득형질의 유전이 부정되어 유전에 대한 환경적 영향을 배제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다윈은 『종의 기원』을 기술함에 있어 자연도태 작용을 하는 단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었다. 그런데 멘델주의 유전학의 성립으로 인하여 자연도태 작용의 단위가 유전자라는 것이 설득력있게 받아들여지게 된 것이다. 이에 우생학자들은 개체적 유전인자에 의해 인간의 분리된 특질들이 결합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를 통해 사회는 영구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파악하였다. 이제 사회적 분위기는 유전자에 의한 사회적 도태를 강조하는 국면으로 전환되기

---

21) Donald K. Pickens, *op. cit.*, pp. 12-13.

22) 廉雲玉, 『1899 년-1906 년 영국의 인종퇴화론에 관한 연구 - 우생학과의 관련을 중심으로』, 『史叢』, 第 46 輯, 高大史學會, 1997, p. 392.

23) Carl N. Degler, In Search of Human Nature : The Decline and Revival of Darwinism in American Social Thought (N.Y. : Oxford U.P., 1991), p. 42.

시작하였다.

결국 멘델주의 유전학의 발전은 유전론자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과학적 토대를 제공해 준 셈이 되었다. 나아가 멘델주의 유전학은 형질의 급속한 제거의 전망까지도 제공하는 것처럼 보였다. 비록 초기 유전학자들은 자연도태가 생물학적 진보의 원인이라고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지만, 맨델주의 유전학의 발전은 해로운 형질의 확산은 되돌릴 수도 있다는 희망에 찬 기대를 심어주기에 충분하였다.

이러한 요인들에 의해 발전하기 시작한 우생학은 갈톤(Francis Galton)에 의해 체계화되고 학문적으로 확립되었다. 갈톤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시민들의 확산을 제한하는 것이 정부의 의무라고 하면서, 정부는 유리한 개인들과 불리한 개인들의 적절한 비율을 조절하는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갈톤에 의하면 열등한 인간성의 형태가 확산되는 것은 인종을 ‘ 퇴화(degeneration)’ 시키는 공포이며, 그것은 공동체의 자원을 고갈시키는 것이었다.[24)]

갈톤은 1869년 『유전적 천재』(*Hereditary Genius : An Inquiry into Its Laws and Consequences*)란 책을 통해 우생학 사상을 대중들에게 설파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저명인사들의 혈연관계를 연구함으로써 혈통에 따른 생물학적 불균형을 예증하려고 하였다. 이를 통해 저명한 집안의 혈통은 평범한 집안의 혈통보다 더 많은 자손들을 생산하는 능력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이러한 저명한 집안의 혈통은 선택적인 결혼을 수 세대에 걸쳐 계속함으로써 만들어낼 수 있다고도 주장하였다.[25)]

이러한 갈톤의 관심은 당시 다른 많은 과학자들처럼 갈톤 자신도 진화의 열쇠로서 유전을 상정한 것에 기인하는 것이었다. 그는 저명한 집안의 혈통관계 연구를 통해 왜 어떤 개인이나 집단들이 생존경쟁에서 우세할 수밖에 없는 가를 증명하려하였고, 생존경쟁에서의 우세는 바로 유전에 의한 것이라는 생물학적 예증을 보임으로써 자신의 주장이 객관적임을 보이려하였다.[26)]

이후 갈톤은 1883년 『인간의 재능과 계발에 관한 연구』(*Inquiries into Human Faculty and Its Development*)를 출간하면서 처음으로 ‘ 우생학’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고, 능력은 유전된다는 이론을 주장함으로써 기본적인 유전론자로서의 입장을 좀 더 강하게 견지하기 시작하였다.[27)] 갈톤은 이 책에서 강조한 유전결정론적 시각을 중심으로 생존경쟁에서 우월한 사람들의 궁극적인 승리를 보장하고, 不適者를 적절하게 격리하는 방법을 설파함으로써 그가 상정한

---

24) Peter J. Bowler, *op. cit.*, p. 291 ; 일반적인 우생학 고찰은 C. Blacker, *Eugenics : Galton and After* (Mass. : Harvard U.P., 1952) ; Lyndsay A. Farrall, “ The History of Eugenics : A Bibliographical Review,” in *Annals of Science,* Vol. 36, 1979, pp. 111-123 참조.

25) 갈톤의 이러한 유전분석은 저명한 집안은 실제로도 우수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으며, 반면 덜 저명한 집안은 능력이 부족하다는 假定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었다. 그는 능력의 지표로서 사회적 명망을 삼았던 것이다. Daniel Kelves, *op. cit.*, pp. 3-4.

26) Donald K. Pickens, *op. cit.*, pp. 24-25.

27) Peter J. Bowler, *op. cit.*, p. 291.

우생학의 대상은 사회적으로 상위에 위치한 사람들의 것이 되었다.[28)]

이러한 갈톤의 우생학 사상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것은 소위 ‘ 역선택(negative selection)’ 의 사고였다. 진화가 환경과 개체간의 상호작용에 의한 변화의 결과로 일어나는 것이라면 진화의 이면에는 반드시 퇴화가 존재하게 마련이다. 다시 말해 자연계에서 생존경쟁에 의한 진화는 퇴화하는 개체를 필연적으로 전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갈톤은 이러한 역선택의 사고에 근거하여, 퇴화한 인종을 제거하고 우수한 인종을 육성해 인류의 인종개량을 도모하려고 하였다.[29)]

갈톤은 이러한 인종 개량의 측면에서 ‘ 긍정적 우생학(positive eugenic)’ 과 ‘ 부정적 우생학(negative eugenic)’ 을 제기하였다. 먼저 긍정적 우생학이란 우수한 능력을 가진 개인들이 더 많은 수의 자손을 가질 수 있도록 인종의 생물학적 표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사고에 기반하고 있었다. 반면, 부정적 우생학이란 평균적인 능력아래에 있는 부모들의 자손 수를 제한하는 것으로, 저능한 의식을 소유하고 있다고 추정되는 가장 빈곤한 계급들이 소유한 육체적 허약성이 계승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었다.[30)]

그러나 이러한 갈톤의 극단적인 유전결정론적인 주장은 그다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인간의 인공적인 육성계획이라는 사상에 충격을 받았다. 왜냐하면 갈톤의 우생학적 주장이 처음으로 개진되던 1870-80년대에는 획득형질의 유전이라는 라마르크주의적 사고가 진화론자들에게나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광범위하게 수용되고 있었기 때문이다.[31)]

당시 널리 유행하던 라마르크주의적인 사고에 의하면, 인간의 유전은 인간이 더 좋은 환경을 창조함으로써 단순히 개선될 수 있다고 믿었다. 즉, 이러한 사고 속에서 유전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변화 가능한 것이며, 유전적 결함도 사회적 환경이 더 좋아지고 그것이 계속 유지만 될 수 있다면 결함이 축소되고 제거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시대 분위기에서 갈톤의 유전결정론적인 사고는 거의 설득력이 없었다.

이러한 회의론적인 시각을 다소나마 해결하기 위해 갈톤은 이후 자신의 연구에 수학과 결합된 통계학을 적용하여 생물측정학(Biometrics)이라는 새로운 학문을 주창하였다. 이것은 그가 과학적 방법론을 내세움으로써, 자신의 주장이 과학적 차원의 논의라는 점과 객관적이라는 사실을 부각시키려 했기 때문이었다.

이후 갈톤은 수학적 방법을 골상학에 적용하여, 인간 고유의 능력을 두개골의

---

28) 갈톤이 이 책에서 처음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 우생학(Eugenics)’ 이라는 용어는 ‘ 우수하게 태어남(well-born)’ 이라는 뜻으로 갈톤 자신이 창안해 낸 것이었다. 이 용어는 1904 년 제 1 회 영국사회학회에서 갈톤의 『우생학 : 정의, 전망, 목적』(*Eugenics : Its Definition, Scope, and Aims*)이란 강연을 통해 좀 더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이 강연에서 갈톤은 자연도태의 법칙과 유전학설을 결합시켜 우생학을 “ 각 인종의 선천적 특질의 개선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인을 연구하는 학문, 또한 보편적인 문명화의 수행을 위해 각 인종의 방식대로 그들을 최선의 상태로 인도하려는 학문” 으로 정의했다. Donald K. Pickens, *op. cit.*, p. 28 and p. 35.

29) 廉雲玉, 앞의 논문, pp. 368-369.

30) Peter J. Bowler, *op. cit.*, p. 292.

31) Ernst Myar, 신현철 옮김, 『진화론 논쟁』, 사이언스 북스, 1998, pp. 156-157 ; Carl N. Degler, *op. cit.*, pp. 22-23 & p. 42.

크기와 연관지어 표현하는 방식을 착안하게 하였다. 이러한 갈톤의 의지는 1901년 피어슨(Karl Pearson)과 함께 생물측정연구소(Biometrica)를 설립하여 좀 더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설파하기 시작하였다.[32)]

한편 갈톤과 함께 우생학을 지지했던 피어슨도 통계학을 이용하여 명백한 과학적인 증거를 제시하려고 하였는데, 그는 ‘ 인종적 퇴화(decay)’의 증거로서 보어전쟁(Boer War, 1899 - 1902)기간 동안 지원한 노동계급의 열등한 質的 특이성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피어슨의 지적은 1890년대 들어 영국사회에서 등장한 ‘ 不適者의 단종(sterilization)’ 문제가 제기되고, 당시 전개되던 영국의 적극적인 제국주의 정책과 맞물려 인종적 효율성의 문제 및 국가적 효율성의 문제 등이 광범위하게 논의되던 상황과 연관이 있다.[33)]

1899년 발발한 보어전쟁에서 영국군은 개전 초기 예상치 못한 고전을 면치 못하였는데, ‘ 우수한’ 영국군대가 ‘ 열등한’ 보어인들의 군대에 맞서 고전을 면치못했다는 사실은 영국인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보어전쟁은 영국군에 지원한 가난한 사람들의 육체적 허약을 폭로해주는 계기가 되었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영국의 제국적 위대함이 도시 산업근로자들의 열악한 육체적 허약으로 인해 위협받는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러한 위기의식은 영국이 다른 주요한 적대국들보다 경제적 · 정치적으로 우월해야한다고 믿는 이들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국가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게끔 하였다.[34)]

이러한 사회적 우려 속에서 피어슨은 자본주의에서 값싼 노동력을 소유하고 평균적 삶의 질 아래에 있는 이민노동자들과 같은 사회적으로 不適者인 노동계급의 과도한 재생산에 우려를 표했다. 그러나 피어슨은 결국에는 유전이 승리하기 때문에 더 많은 교육을 받은 자들과 더 높은 지위를 소유한 자들이 종국에는 성공할 것이라고 파악하였다. 그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국가의 흥망성쇠를 갈톤과 마찬가지로 과학적 차원의 통계학적 조사를 통해 조절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우생학 사상을 개진하였다.[35)]

그는 보어전쟁이 가져온 사회적 우려와 자신의 우생학적 사고를 토대로 국가의 효율성문제와 출산율의 계급간 차이를 연결지어 설명하였다. 피어슨이 주목한 것은 출생율의 전반적인 하락경향 그 자체가 아니라, 출생율 하락에 계급별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이었다.

그에 의하면 지성과 능력을 갖춘 개체의 재생산 능력은 열등한 개체보다 낮은 경향이 있고, 부적합한 개체의 과도한 출산율은 높은 사망률로서 상쇄되는 것이 바로 자연도태의 법칙이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당시 영국사회에서 재생산의 계급별 차이는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기 때문에, 만일 사태를 이대로 방치해두면 ‘ 우수한’ 영국인은 독일인이나 미국인 심지어는 ‘ 하찮은

---

32) Daniel Kelves, *op. cit.*, p. 7 ; Donald K. Pickens, *op. cit.*, p. 24.

33) Peter J. Bowler, *op. cit.*, p. 292 ; Daniel Kelves, *op. cit.*, p. 24.

34) 이러한 상황을 잘 알려주는 것이 마페킹(Mafeking)의 포위사건이다. 보어전쟁 발발 직후인 1899 년 10 월에서 1900 년 5 월의 약 7 개월 동안에 걸쳐, 케이프 식민지의 지방도시 마페킹의 방위를 맡은 영국군 수비대가 국경을 넘어온 트렌스발 공화국의 보어인 부대에 의해 포위당한 사건을 말한다. 1900 년 5 월 17 일 포위가 해제되자 그 소식은 곧 본국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어 전투의식과 애국심을 고양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廉雲玉, 앞의 논문, p. 369.

35) Daniel Kelves, *op. cit.*, pp. 33-34.

보어인’에게 마저 양적으로 추월당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36]

여기에서 피어슨은 국가효율을 주장하는 다른 논자들과 마찬가지로 대영제국의 효율의 쇠퇴를 우려했던 것이다. 이러한 피어슨의 비관적인 관점은 그로 하여금 열등한 인종들이 살고 있는 열대지역은 고등한 인종들이 살고있는 온대지역에 의해 식민화되어야 한다는 사고로까지 발전되었다.[37]

피어슨의 이러한 태도는 생존경쟁을 지지하고 자유방임원리를 주장하던 사회다윈주의자들의 관심을 집단 간의 생존경쟁으로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제 사회다윈주의는 개인적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 집단의 문제, 국가의 문제로 확대되어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갈톤과 피어슨을 중심으로 한 우생학은 19세기말을 지나 20세기 초로 들어서면서 좀 더 대중화되기 시작하였다. 갈톤은 1904년 전국 우생학 실험실(The National Eugenics Labratory)을 설립하였고, 곧이어 우생학 교육협회(Eugenics Education Society)를 창설하였으며, 우생학 리뷰(Eugenics Riview)紙를 창간하였다.

이와 병행해서 다른 지역에서도 우생학은 발전을 이루었다. 미국에서도 우생학은 20세기초에 이르러 번창하기 시작하였다. 영국으로부터 미국에 소개된 우생학은 미국사회와 정치적 생활 및 학문적 생활에 상당히 큰 영향을 끼쳤다.[38]

미국에서 우생학이 확산될 무렵은 이른바 ‘혁신주의 시대(Progressive era)’로 우생학은 국가적 차원의 사회개혁 운동과 맞물려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결과, 인종적 개량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회개혁 프로그램이 만들어졌는데 그것은 ‘출산율 제한(birth rate control)’ 및 ‘단종(sterilization)’ 프로그램이었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은 루즈벨트(Theodore Roosevelt) 등과 같은 정치가들과 정치이론가들 사이에 상당한 반향을 가져왔다.[39]

사회적 운동과 결합된 미국에서의 우생학은 이후 조직건설로 발전하여 인간 인종의 유전에 대한 연구와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미국 양육가 협회(the American Breeders Association)가 결성되었고, 이후 이 조직은 이른바 멘델주의 그룹(Mendelian group)과 결합하여 1906년 우생학 위원회(Eugenics Committee)를 구성하였다. 1910년에는 우생학 기록 보관소(the Eugenics Records Offices)가 설치되었다.

이러한 조직들의 활동은 이민의 금지나 제한을 입법화하도록 하고, 우수한 혈통의 가치와 열등한 혈통의 사회적 위협을 보다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미국에서 전개된 우생학 혹은 우생학 운동이 엘리트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

36) Karl Pearson, “National Deterioration,” in *The Times*, Sept.5, 1905, p. 97 & p. 99, 廉雲玉, 앞의 논문, pp. 391-392 에서 재인용.

37) Richard Hofstadter, *op. cit.*, pp. 185-186 ; 피어슨과 사회다윈주의 및 사회제국주의의 관련성에 관해서는 Bernard Semmel, *Imperialism and Social Reform : English Social-Imperial Thought 1895-1914* (London : Allen and Urwin, 1960) 참조.

38) 미국에서의 우생학 발전에 대해서는 Mark H. Haller, *Eugenics : Hereditarian Attitudes in American Thought* (New Brunswick, N.J. : Rutgers University Press, 1963) ; Kenneth M. Ludmerer, *Genetics and American Society : A Historical Appraisal* (Baltimore : Johns Hopkins U.P., 1972).

39) Donald K. Pickens, *op. cit.*, p. 4.

해주었다.

사회운동으로까지 확장되었던 우생학은 모든 사회문제를 유전학적으로 혹은 생물학적으로 해석하면서 인간의 고유한 특질에 상위와 하위라는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非人間的인 모습을 들어내었다. 그럼으로써 우생학은 사회적 차별을 정당화하고, 그로 인해 현상유지를 갈구하는 사회 기득권 세력들에 의해 쉽게 옹호되고 수용되어질 수 있었다. 결국,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본다면 우생학과 연관된 사회다윈주의는 非人道的인 사회적 차별을 정당화하고, 엘리트적 신념에 기반했던 보수적 이데올로기였다는 사실이 명백해진다.

4. 인종주의와 제국주의

인위적인 분류에 의한 의도적인 인종간의 위계 내지 서열이라는 사고는 우생학적 사고와 더불어 사회다윈주의자들이 다윈의 생존경쟁과 적자생존이라는 문구의 함의를 인종들간의 상호관련성 속에서 설명하면서 발생한 것이다. 사회다윈주의자들은 백인종에 비해 흑인종이 열등하다는 증명되지 않은 사실을 제국주의적 팽창의 합리화와 자신들의 논리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과장되게 해석한 측면이 있다. 제국주의적 팽창의 시대에 사회다윈주의자들은 다윈의 생존경쟁이라는 용어를 이용해 백인종이 다른 열등한 인종들을 제거하는 것을 정당화하였다.

사회다윈주의자들은 사회적 환경과 자연을 지배하는 영원한 법칙에 의해 인류의 개선과 진보는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이러한 논리에 기반해서 열등한 자들이 열등한 것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여타의 사회적 제도나 사회질서 때문이 아니라 ‘ 자연적으로’ 열등하게 태어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사회다윈주의자들은 『종의 기원』의 부제인 ‘ 생존경쟁에서의 유리한 종족의 보존(the Preservation of Favoured Races in the Struggle for Life)’이 함의한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자신들이 점령하거나 병합한 영토에서 열등한 인종들을 제거하는 것을 생존경쟁의 필연적인 결과인 것처럼 받아들였다.[40] 나아가 이들은 인종간의 차이는 인간성의 단순한 다양성에서 파악될 문제가 아니라, 원래부터 자연적으로 차별적인 인종이 존재해왔다는 의미로 인종을 파악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정작 다윈은 『종의 기원』에서 자연도태의 발견으로 이제 ‘ 인간의 기원과 그의 역사에 빛이 비추어질 것이다’라고만 언급하였듯이, 다윈은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에 의해 인간에게 자연도태를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했었다.

이후 다윈은 자신의 동조자들과 사회적 환경변화에 힘입어 『인간의 유래』(*Descent of Man,* 1871)에서 인간도 자연도태의 원리에 의해 하등한 동물로부터 진화해왔다고 조심스레 언급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다윈은 모든 동물들처럼 인간도 자신의 급속한 다산성의 결과로 발생한 생존경쟁에 의해 현재의 고등한 존재로 개선되었고, 인간이 만일 더욱 개선되기를 희망한다면 혹독한 생존경쟁에 복종해야만 한다거나, 재산의 상속은 그 자체로 악이 아니며, 부의 적당한 축적은

---

[40] Richard Hofstadter, *op. cit.*, pp. 170-171.

결코 자연도태의 과정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기도 하였다.[41]

사회다윈주의자들은 이러한 다윈의 언급을 근거로 인종간의 우열이 존재한다는 관념을 표출했던 것이다. 그들은 화석기록을 토대로 백인종은 존재의 고리(chain of being)에서 최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반면 흑인종은 원숭이와 같이 가장 낮은 단계에 위치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에게 백인종을 제외한 다른 인종들은 일종의 살아있는 화석으로 간주되었다.[42] 이러한 인종적 우월성 사상을 바탕으로 제국주의자들은 아프리카와 아시아에 대한 제국주의적 팽창을 전개시켜 나갔다.

다윈과 자연도태론의 공동발견자인 월리스 역시 " 정신적 · 도덕적 특질이 우수한 종족들은 그렇지 못한 종족들보다 생존경쟁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그들은 살아남아 종족 보존을 하지만 덜 발전된 종족들은 그 수가 감소하며 결국 정복당하고 만다"[43]고 주장하였다.

다윈은 월리스의 견해에 동조하였고, 그것이 개인들 · 종족들 · 민족들 · 인종들간의 육체적 · 정신적 · 도덕적 능력에 의한 자연도태의 결과라고 보았다. 다윈은 기름진 옥토와 온화한 기후에 사는 인종들이 열대지역에 사는 인종들보다 인내력, 통찰력, 현명함 등에서 훨씬 더 발전했으며, 생존경쟁에서 유리한 인종들은 보존되고 정신적으로 낮은 상태에 머물러 있고, 덜 발전된 인구들은 필연적으로 사멸로 인도된다는 것은 하나의 법칙이라고 보았다.[44]

이러한 다윈의 생존경쟁의 필연성과 그것에 의해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고통들이라는 관점이 사회다윈주의자들로 하여금 쉽게 경제적 불평등과 야만적 생존경쟁을 위한 변명으로 삼도록 기능했던 것이다.

한편, 19세기말은 유럽 각 국이 후진 상태에 놓여있는 민족들에 대한 지배를 경쟁적으로 전개하던 시기였다. 다윈의 생물계 내에서의 생존경쟁에 의한 자연도태라는 사상은 이제 사회로 확대되어 인종적 편견과 인간 세계에서의 생존경쟁 혹은 전쟁과 결합되어 기술적으로 낮은 지역의 복속을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확대해석 되었다.

따라서 사회간의 전쟁, 민족간의 전쟁, 기업간의 생존경쟁이 합리화되어 자유경쟁에서 이긴 자는 적자생존을 이룬 것을 의미하게 되었고, 따라서 경쟁에서의 생존은 경제적 혹은 무력적인 지배를 의미하였다. 또한 변이의 유전은 필연적으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불평등하다는 이론적 증거로 인식되었으며, 환경에의 적응은 생물학적 가치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가치를 지닌 것이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자연도태 혹은 적자생존은 인종적 편견, 사회적 차별논리 등과 결합되어 사회진보의 원동력으로 간주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적자생존이라는 용어는 불가피하게 국가간 전쟁에 적용되었고, 각 국가들은 전쟁에서의 승리는 最適者라는 것을 증명해 줄 것이라고 확신하였다. 장래의 예상되는 전쟁은 舊시대적인 자유방임적 기업간의 경쟁의

---

41) Carl N. Degler, *op. cit.*, p. 11 ; Gertrude Himmelfarb, *Victorian Minds* (Gloucester, Mass. : Harper & Row, 1962), p. 320.

42) Donald K. Pickens, *op. cit.*, pp. 10-11.

43) A. R. Wallace, " The Origin of Human Races and the Antiquity of Man Deduced from the Theory of Natural Selection," in *Anthropological Review*, Vol. 2, 1864 clxv, quoted in John C. Green, *op. cit.*, p. 102.

44) *Ibid.*, pp. 102-103.

강조와는 상반되는 국가적 통합을 호소하도록 하였다. 그래서 생물학적인 자연도태 메카니즘은 국가간 투쟁의 개념으로 전환되었다.

이제 국가간의 전쟁은 진화론의 이름을 빌어 진보의 원동력으로 찬양되었다. 영국의 경우, 보어전쟁을 둘러싸고 제기된 '국가효율성(national efficiency)'이라는 문제는 사회다윈주의자들이 인종적 우월성이라는 차별논리에 기반해 제국주의적 팽창을 정당화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사회다윈주의자들은 국가간의 생존경쟁 혹은 전쟁에서의 생물학적 우월성, 즉 인종적 우월성을 강조하였다. 결국 국가에 대한 이론도 진화론에 영향을 받게 되었다. 그들은 제국주의를 생물학에 기초한 인종적 편견과 혼합하여 옹호하였다.

한편, 미국에서의 인종주의는 우생학의 발전과 함께 전개되었다. 인종의 혼합이라는 공포에 직면한 미국의 백인들은 당시 활발하게 유입되던 열등한 상태의 동양과 동유럽의 이민자들의 급속한 증식에 놀라 샌프란시스코에서 아시아인 축출동맹(the Asiatic Exclusion League)이라는 백인들만의 단체를 결성하기에 이르렀다. 이들 대다수는 열등하게 양육된 인종들을 축출할 필요성을 백인인구에서 결점이 있는 형질을 제거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그들의 이러한 움직임은 1924년 이민제한법(the Immigration Restriction Act)의 제정으로 절정에 이르렀다.[45)]

또한 미국에서의 인종주의는 백인종, 특히 앵글로 색슨족의 우월성을 합리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백인 미국인들은 흑인들, 미국내 인디언들, 아시아로부터의 이민자들이 도덕적으로나, 知的으로나 백인들에 비해 열등하다는 것을 당연시하는 분위기였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남북전쟁을 前後로 한 정치권력의 증가와 함께 나타난 것으로 남북전쟁 이후 백인종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현상은 미국 내의 인종적 편견을 극대화시켜 나갔다고 볼 수 있다. 이제 미국내에서도 유색인종은 열등하다는 생각이 광범위하게 개진된 것이다.[46)] 또한 이러한 논의의 이면에는 남북전쟁 이후 공화당이 주도해 온 상업적 차원의 팽창 뿐만 아니라 카리브해 지역을 비롯한 중남미에 대한 적극적 간섭과 개입, 인디언에 대한 무력정책을 통한 군사주의적 정책 등이 폭넓게 혼합되어 있었다.[47)]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본다면, 미국의 제국주의적 팽창도 다윈의 자연도태론에 의해 그 정당성을 부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팽창주의적 논자들은 적자생존이 자연의 법칙이고 진보의 과정이라면, 더 잘난 인종은 그들 스스로 열등한 인종에 대한 압박과 파괴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죄스러워하고 유감을 표시해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논리에 의해 다윈의 자연도태론은 팽창주의에 대한 '신성한 재가(Sacred Sanction)'를 의미하게 되었다.[48)]

미국에서의 앵글로 색슨주의와 팽창주의적 논리와의 결합은 1898년 美西전쟁, 1899년 독일과의 사모아군도 분할, 1900년 '개방정책(Open Door Policy)'에 의한 중국 '의화단사건(the Chinese Boxer's Rebellion)' 관여, 1902년

---

45) Peter J. Bowler, *op. cit.*, pp. 301-302.

46) Michael Banton, *Racial conciousness* (N.Y. : Longman, 1988) 참조.

47) 권용립, 『미국대외정책사』 (서울 : 민음사, 1997), p. 259.

48) 姜宅求, 『19 세기말 美國帝國主義 起源에 대한 硏究』, 東國大學校 博士學位論文, 1995, pp. 37-38.

필리핀내의 반란 진압 등 일련의 사건을 통해 야기된 전쟁과 제국, 팽창과 정복문제를 둘러싼 논쟁에서 살펴볼 수 있다.[49] 이러한 논쟁에서 팽창주의자들은 자신들의 논리를 정당화하기 위해 앵글로 색슨족의 우월성을 주장하였다. 그들은 앵글로 색슨의 명백한 운명(Manifest Destiny)과 적자생존을 위한 팽창은 진보의 법칙에 의한 필연적인 경향성이라고 주장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한다면 사회다윈주의는 단순한 생물학적 상이함을 우열의 개념으로 변질시켜 인종간 · 국가간의 차별을 정당화했던 非人道的이고 차별적인 이데올로기이자 보수적 이데올로기에 다름 아니었다.

5. 결론

사회다윈주의는 다윈의 생물학적 진화론과 인간 사회의 진보를 하나로 연결시키면서, 우월한 인간 집단의 발전을 정당화하는 것을 일차적 목적으로 삼는 이데올로기였다. 따라서 사회다윈주의는 19세기말 서구사회에서 기득권 세력으로 공고화된 지배세력이 부의 사회적 분배 요구를 거절하면서 자신들의 현재 지위와 우월성을 정당화하는 일종의 정치 이데올로기로서 등장한 것이다.

또한 사회다윈주의는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의 자기해체과정과 그 맥을 같이 하면서 생존경쟁과 인간 역사의 진보라는 기치아래 자유방임적 자본주의 질서의 현상유지를 주장하는 보수적인 정치적 필요에 의해 변형된 이데올로기였다. 사회다윈주의는 다윈의 진화론과 스펜서의 사회진보 논리가 결부되어 다윈의 진화론의 한 측면인 생존경쟁과 적자생존을 강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사회 속에서의 개인간의 자연적 불평등을 용인하였고, 그 결과 발생하는 사회적 계층화를 자연적 과정으로 인식하기에 이르렀다.

그들은 자유로운 생존경쟁을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조화와 만인의 행복을 약속해주는 진보된 사회의 열쇠로 인식하였고, 이러한 인식은 사회적 실천과정 속에서 끝없는 생존경쟁에서의 승자만이 살아남게 된다는 논리로 귀착되었다.

이러한 귀착은 근본적으로 자본주의적 질서를 정당화하는 결론에 이른다. 인간성의 판단과 존재의 이유가 사유재산의 유무 및 그것의 획득능력으로 대변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과연 사회다윈주의자들이 주장하듯 장래에 사회의 진보를 가져올 공정하고 자유로운 생존경쟁이 가능할 것인지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일개인이 사적 재산의 소유 여부에 의해 그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아무런 물적 조건도 소유하지 못한 무산자와 권력 및 사유재산의 주된 담지자인 유산자의 공정한 경쟁이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사회다윈주의는 애초부터 이미 결정된 정치적 결론을 정당화하는 수단에 지나지 않았던 셈이다.

스펜서가 공정한 경쟁을 보장한다는 의미로 주장했던 국가불간섭주의가 바로 이러한 사회다윈주의의 노골적 불평등성을 합리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였던 것이다. 또한 스펜서적 개인주의는 생존경쟁에서의 승리와 패배를 철저히 개인주의적 차원으로 이전시킴으로써, 생존경쟁에서 패배한 자는 자신의 무능력 때문에 패한 것이므로 동정의 여지가 없으며 이러한 약자의 패배는 자연의

---

[49] Richard Hofstadter, *op. cit.*, pp. 170-171 & pp. 179-184.

법칙이기 때문에 거역할 수 없는 것이 되고 만다. 결국 스펜서의 개인주의적 자유방임주의는 사회적 불평등을 자연적 법칙으로 귀결시킴으로써 자본주의적 계급질서를 정당화했던 보수적 이데올로기에 다름 아닌 것이다.

또한 사회다윈주의는 유전의 강조로부터 생존경쟁과 결부된 적자생존을 역설함으로써 인종적 불평등을 정당화하고, 제국주의적 침략을 합리화하는 비인간성을 들어내었다. 결코 위계적일 수 없는 생물학적 차이를 사회적 차별로 변질시키고, 이것을 유전에 의한 결과로 설명함으로써 사회적 차별을 자연적 과정인 것으로 만들었다.

이러한 논리는 부자와 빈자의 사회적 계층화를 자연적 과정으로 상정함으로써 자본주의적 질서를 정당화했던 사회다윈주의의 자연스런 논리적 귀결이었다. 선진 열강들에 의해 복속된 식민지역인들은 생존경쟁에서 패배한 자들일 뿐만 아니라 유전적으로도 열등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정복당하는 것은 사회다윈주의자들에게는 당연한 것이었다.

사회다윈주의자들이 유전적 차이의 강조를 통해 정당화했던 인종적 불평등과 제국주의적 침략은 인간 지능이나 행동에서 보여지는 인간의 차이를 고정적인 것으로 파악했던 오류에 기인한다. 거의 모든 인간의 행위는 유전만으로 고정되지 않으며, 환경에도 영향을 받는다. 더군다나 유전적 차이는 단순한 생물학적 차원의 논의일 뿐, 그것이 인간 개인의 결함이라든지 나아가 사회적 차별로 인식될 근거는 그 어디에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생학자들을 비롯한 사회다윈주의자들이 전제로 삼았던 適者와 不適者라는 관념은 결코 용인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다윈주의자들은 생물학적 혹은 유전학적 차이를 근거로 삼아 인간 사회를 규정함으로써, 인간 상호간의 그리고 인간 고유의 특질에 상위와 하위라는 그릇된 가치를 부여하였다. 이는 사회다윈주의가 얼마나 非人道的인 이데올로기였는지를 상기시켜 주는 대목이다. 특히 과학적인 유전적 통제에 의해 인종개량을 도모했던 우생학은 나찌의 시대에 이르러 反人間的 학살을 정당화하는 기제로 사용됨으로써 사회다윈주의의 관념이 얼마나 큰 역사적 폐해를 가져왔는가 또한 명확히 보여주었다.

요컨대 지금까지의 논의를 토대로 본다면 사회다윈주의는 다윈이라는 당대의 위대한 과학자의 이름과 다윈의 진화론이 갖고 있는 생물학적 권위를 이용해 사회적 불평등을 정당화하고, 기존의 사회질서를 옹호했던 보수적 이데올로기였으며, 나아가 유전적 차이를 근거로 인종적 불평등을 용인하고, 사회적 차별을 정당화했던 非人道的이고, 엘리트 중심적인 이데올로기였음에 틀림없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실은 사회다윈주의가 자유방임적 자본주의, 우생학, 인종주의 및 제국주의 등의 정당화 논리로 기능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사회다윈주의가 이러한 사상들만을 위해 형성되었다거나, 그러한 사상들의 절대적인 요소는 아니었다는 점이다. 만일 이러한 점을 간과할 경우 우리는 역사 해석에서 상당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